

寒 暖 計

싸늘한 大理石기둥에 목아지를 비틀어 맨 寒暖計、
문득 드러다 볼수있는 運命한 五尺六寸
의 허리가는 水銀柱、
마음은 琉璃管보다 맑소이다。

血管이單調로워 神經質인 輿論動物、
각금 噴水같은 冷춤을 억지로 삼키기에、
精力을 浪費합니다。

零下로 손구락질할 수돌네房처럼 칙은 겨울보다
해바라기가 滿發할 八月校庭이 理想콥소.이다。
피끓을 그날이——

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새울
시다。
동저골바람에 언덕으로、숲으로 하시구려—
이렇게 가만가만 혼자서 귓속이야이를 하였습니다。
나는 또 내가끓으는사이에——

나는 아마도 眞實한世紀의 季節을뺏아、
하늘만보이는 울타리않을뛰쳐、
厂史같은 포시순을 직혀야 봅니다

一九三七、七、一、

한난계

싸늘한 대리석 기둥에 모가지를 비틀어 맨 한난계
문득 들여다볼 수 있는 운명한 오척육촌의 허리
가는 수은주
마음은 유리관보다 맑소이다。

혈관이 단조로워 신경질인 여론동물
가끔 분수 같은 냉 춤을 억지로 삼키기에
정력을 낭비합니다。

영하로 손가락질할 수돌네 방처럼 칙은 겨울보다
해바라기가 만발할 팔월 교정이 이상콥소이다
피끓을 그 날이——

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새울
시다。
동저고리 바람에 언덕으로, 숲으로 하시구려—
이렇게 가만가만 혼자서 귓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。
나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——

나는 아마도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,
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
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봅니다。

1937. 7. 1.